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2장 계시 개념과 계시 이론들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2장 「계시 개념과 계시 이론들」, 텍스트판 46–54쪽. 처음 실린 곳은 『Universal Cyclopaedia and Atlas』(1909) 10권 79–81쪽의 사전 항목이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먼저 계시를 정의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행동'이 있고, 그 결과로 사람이 갖게 되는 '지식'이 있다. 범위로 보면 넓은 뜻(일반계시)과 좁은 뜻(특별계시)이 있다. 그는 오늘날 논쟁의 핵심이 일반계시가 아니라 특별계시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18세기 이신론부터 칸트를 거쳐 19세기 범신론적 사고까지, 특별계시가 어떻게 약해져 왔는지를 추적한다.

워필드는 계시를 판단할 때 '어디서 왔는가'(원천)만이 아니라 '어떻게 왔는가'(방식)까지 초자연적이어야 가장 엄밀한 계시라고 기준을 세운다. 이 기준으로 당대 이론들을 차례로 평가한다. 계시를 종교 의식의 자연적 성장으로 보는 이론, 하나님의 구속 사건으로 보는 이론, 내면 체험으로 보는 이론이 그 대상이다. 그는 모두 성경의 계시 개념에 못 미친다고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개혁파의 계시 교리를 정리한다. 그 흐름은 자연계시에서 구속 사건, 중생을 거쳐 말씀으로 직접 주시는 계시로 이어진다. 결론은 성경이 계시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라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계시 개념 (가) — 두 가지 뜻과 논쟁의 역사

워필드는 계시를 두 방향으로 정의한다. 능동적 의미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

가리키는 넓은 뜻(일반계시)과, 초자연적 방법으로 전해진 지식에 한정되는 좁은 뜻(특별계시)이 있다.

일반계시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유신론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볼 능력을 의심하는 불가지론자 정도다. 오히려 현대 신학 대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계시에 근거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점에서는 비더만·립시우스·플라이더러 같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와 같다. 워필드는 페어베언의 말도 끌어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지도(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 쟁점은 특별계시가 실제로 있느냐다. 18세기에는 하나님의 초월만 강조한 이신론이 특별계시를 불필요하고, 하나님께 불가능하거나 도덕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합리주의는 특별계시가 있다고 보면서도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교조적 합리주의는 필요는 인정했지만 진리를 믿는 권위 있는 근거로는 보지 않았다.

칸트는 이 흐름을 두 방향으로 바꿨다. 부정적으로는 전통적 신 존재 증명을 비판해 자연계시의 토대를 흔들었다. 이것이 철학적 불가지론과 리츨 학파의 '기독교 불가지론'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긍정적으로는 관념론의 길을 열었고, 그 범신론적 전제는 하나님의 '내재'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사고를 낳았다. 이제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일로 불렸다. 그 결과 자연적인 것에 '초자연'이라는 딱지만 붙었고, 밖에서 새 지식이 주어진다는 의미의 특별계시는 여전히 부정되었다.

1. 계시 = 하나님의 알리심(행동) + 그 결과 지식
2. 넓은 뜻 일반계시, 좁은 뜻 특별계시
3. 논쟁의 핵심은 특별계시의 실재
4. 18세기는 초월만 본 이신론과의 싸움
5. 19세기는 내재만 본 범신론과의 싸움

📜 2. 계시 개념 (나) — '어디서'뿐 아니라 '어떻게': 계시의 세 층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구분하는 것, 특별계시가 가능하고 실제로 있음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특별계시에는 사람이 신적인 것에 붙이는 초자연성보다 훨씬 직접적인 초자연성이 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핵심 기준은 이렇다. 계시를 가장 엄밀한 뜻으로 지키려면 지식의 원천(어디서 왔나)뿐 아니라 지식의 방식(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왔나)도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원천만 강조하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으로 흘러 생각과 계시의 구분이 사라진다. 자료가 초자연적이어도 사람이 순전히 인간적 방법으로 얻었다면 그 결과는 자연적 지식이다. 그래서 '신적 진리에 대한 직관'도 직관이 인간의 방식인 이상 다른 종류의 지식이 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식에는 세 층이 있다. 첫째, 자연적 자료를 자연적 능력으로 다뤄 얻는 지식이다. 둘째, 성령이 초자연적 자료를 주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평소 능력으로 소화해 얻는 '중간 층'의 지식이다. 셋째, 초자연적 원천에서 초자연적 방식으로 직접 전달되는 지식이다. 워필드는 앞의 방식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때로는 얼굴을 맞대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 셋째 계시에서 계시의 고유한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현대 사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지점이자, 기독교 변증학이 특히 지켜 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다.

1. 원천 + 방식 모두 초자연이어야 엄밀한 계시
2. 원천만 보면 생각과 계시가 뒤섞인다
3. 직관은 인간적 방식, 계시가 아니다
4. 세 층: 자연 / 중간 / 직접 전달
5. 다른 계시 방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 “인간은 그런 계시를 단순하게 수용할 뿐이지 노력으로 획득하지 않는다.”

워필드는 최근 계시 이론들에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다고 진단한다. 가장 낮은 형태는 계시를 인간 지성의 순전히 자연적인 활동으로 본다. 출발점은 다양하다. 이신론처럼 하나님이 사람 생각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범신론처럼 모든 생각을 하나님 생각의 연장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은 같다. 하나님 쪽에서 '계시'라 부르는 것이 사람 쪽에서는 도덕적·종교적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무리 안에도 단계가 있다. 극단적 이신론은 창조에서 얻은 자료로 생각해 낸 지식만 인정한다. 사변적 유신론자들(각주로 비더만·립시우스·플라이더러를 든다)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내재적 활동을 더한다. 이 이론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리츨 학파(각주로 헤르만·카프탄을 든다)는 그리스도 안의 '실재적 계시'를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도,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 지식도 부정하고 계시의 자료를 그리스도의 역사적 모습이 주는 인상에 가둔다.

한 단계 높은 것이 계시를 '연속된 구속 활동'(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별 섭리를 강조해 처음으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구별할 토대를 놓는다. 또 성령이 사람의 이해를 준비시킨다고 인정하는 만큼 높아진다. 호프만은 초기 저작에서 낮은 형태로 제시했다가 나중에 고쳤다. 로테는 높은 형태의 대표자다. 그는 계시를 구속 행위 속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영감'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 영감은 새 진리를 주지 않는다. 사람이 이미 가진 지식 요소를 새로 조합하게 할 뿐이다. 브루스는 계시가 말씀만이 아니라 특히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고, 선지자는 영감으로 새 개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웨스트코트의 견해도 이와 비슷하다.

1. 최하층: 계시 = 종교 의식의 자연 성장
2. 사변적 유신론, 리츨 학파도 같은 틀
3. 구속 사건론은 한 단계 높다
4. 로테의 '영감'은 새 진리를 주지 않음
5. 브루스·웨스트코트: 말씀보다 행동 강조

📜 4. 계시 이론들 (나) — '성령 소통'형과 성경의 계시 개념

과도기 이론들을 지나면 두 번째 종류가 나온다. 이 이론들은 계시를 근본적으로 성령이 사람의 지성과 직접 소통하시는 일로 본다. 가장 낮은 형태는 범신론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을 세계 속에 퍼져 있는 생명과 생각으로 보니, 사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조금 높은 형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신적 생명에 대한 내적 확실성을 일으킨다고 본다. 슐츠는 계시를 사람의 내적 생명에 최대한 한정했다. 워필드는 이것을 객관적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는다. 더 높은 형태는 로테처럼 성령의 활동을 하나님의 객관적 드러나심을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도움'으로 본다.

그러나 워필드의 판정은 분명하다. 성령의 사역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거나, 구속 사건이 계시의 진짜 핵심이고 성령의 활동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보는 한 성경의 개념에 못 미친다. 성경에 따르면 계시의 핵심은 구속 사건의 객관적 과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활동이다. 그 활동은 여러 전달 방식에 걸쳐 흐르다가 객관적 말씀을 전하는 데서 정점에 이른다.

성경적 계시의 특징은 전달자의 '수용성'이다. 계시를 전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 내거나 추론하지 않았고, 바라거나 염려해서 만들지도 않았다. 내용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때로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주어졌다. 이것을 부정하면 성경적 개념도, 합리적 계시 개념도 지킬 수 없다. 워필드는 모리슨의 수사 의문을 인용하며 이 절을 맺는다. 사람도 언어로 사람과 통하는데, 무한한 지성이 언어로는 말하지 못하고 말 없는 상징으로 희미하게만 자신을 알려야 하는가?

1. 최하층 성령 소통론 = 범신론
2. 슐츠: 내면 확실성, 객관 기적 배제
3. 성령을 '보조'로 두면 성경에 못 미침
4. 계시의 핵심은 성령의 계시 활동
5. 정점은 객관적 말씀, 전달자는 수용적

워필드는 성경의 모든 사실을 정당하게 다루려는 기독교 사상가들의 계시 교리를 정리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창조로 피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셨고, 섭리로 의로운 통치자임을 드러내신다. 사람은 이성을 정상적으로 사용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다. 곧 타고난 하나님 지식(notitia Dei insita)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하나님 지식(notitia Dei acquisita)으로 나아간다. 이 지식은 믿을 만하고 가치 있다. 그러나 죄인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하고, 바로 그 부족함이 더 충만한 지식을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계시를 더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절정에 이르는 연속된 구속 활동, 곧 '새 창조'의 과정이다. 또 하나님은 중생의 은혜로 사람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고 지성을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신다. 밖에서는 새롭게 드러내시고, 안에서는 그것을 받을 새 주체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나 초자연적 사실을 눈앞에 보여 주고 죄의 눈가림을 깨뜨려도, 사람이 하나님만큼 알게 되지는 않는다. 역사에 엮어 넣으신 불완전한 모형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읽어 낼 수 없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를 품은 사건들을 스스로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다. 워필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궁극적 계시조차 말로 된 설명적 계시가 앞서고 함께하고 뒤따르지 않았다면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계시를 더하셨다. 성령으로 사람에게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사역과 뜻과 목적에 관한 지식이다. 방식은 꿈, 환상, 황홀경, 신현, 내적 지시, 간결한 객관적 말씀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목표와 결과는 언제나 특별한 지식을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1. 창조·섭리 = 자연계시, 믿을 만한 지식
2. 그러나 죄인에게는 부족하다
3. 구속 활동(밖) + 중생(안)을 주셨다
4. 그래도 사건은 말씀 없이 해석 불가
5. 그래서 직접 전달하시는 말씀 계시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사도행전 14:17 >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암시로 보임 — 번역서에 장절 표기 없음)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 없이 두지 않으셨다”는 자연계시 출발점의 표현
베드로전서 1:12 >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원의 신비 — 사람 지성이 구속 사건을 스스로 해석할 수 없다는 근거
누가복음 17:20 >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는다 — 사건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근거

📜 6. 계시에 관한 교리 (나) — 특별계시의 특징: 점진성·구속·기적·예언

워필드는 특별계시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이 절은 앞의 넷을 다룬다.

첫째, 특별계시는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았다. 보통의 역사 발전 속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둘째, 특별계시가 펼쳐지는 과정은 구속 사역의 전개와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나 구속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활동도 아니고, 구속 활동과 단순히 같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계시는 구속을 위한 것이지 교훈(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대립이다. 계시가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서 작용한다. 계시는 구속 행위에 덧붙는 해설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속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다른 구속 활동들과 나란히 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한다.

셋째, 기적은 계시의 신임장(계시가 진짜임을 보증하는 증거)이자 계시의 매개체(계시를 실어 나르는 수단)다. 다만 주된 목적은 신임장이다. 어떤 기적은 오로지

드러내지만, 그것이 기적의 주된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워필드는 이 둘 중 한쪽만 말하는 치우친 진술이 쓸데없는 혼란을 낳았다고 본다.

넷째, 예언은 기적과 반대다. 미래를 말하는 예언은 일차적으로 계시 자체이고, 부차적으로 계시의 신임장이 된다. 그 내용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를 증명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계시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증언한다.

1. 계시는 점진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2. 구속과 분리도 동일시도 아니다
3. '구속 vs 교훈'은 잘못된 대립
4. 기적: 주로 신임장, 부차적으로 매개
5. 예언: 주로 계시, 부차적으로 신임장

장절	이 구절의 역할
히브리서 1:1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암시 — 번역서에 장절 표기 없음) “다양한 분량과 방법으로”는 이 구절의 표현. 계시의 점진성을 말하는 성경의 언어
디모데후서 3:15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암시로 보임 — 장절 표기 없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 계시가 구원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참된 지식(지혜)이라는 근거

📜 7. 계시에 관한 교리 (다) — 특별계시와 성경: 최종적 계시

다섯째 특징은 성경과의 관계다. 계시는 지식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지식을 늘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같은 이치로 계시가 오직 성경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구속 사역의 한 부분이자 수단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계시의 유일한 목적으로 치켜세울 수 없듯이, 계시를 사람이 적어 둔 기록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릴 수도 없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 계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계시 활동이 스스로

있게 하려고 택하신 형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계시 방법 가운데 '영감'을 통한 계시도 정당한 자리를 얻는다. 성경은 그 영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계시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구속 사역의 중요한 요소다.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계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성경은 구속 사건들을 기록하지만, 역사 속 은혜를 기록·해석·묘사한 문서 그 이상이다. 과거에 주신 직접 계시들을 담고 있지만, 과거 계시의 기록 그 이상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다.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의 목적을 온전히 선포하며,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준비를 온전히 보여 준다.

1.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
2. 성경을 과장도, 격하도 하지 말라
3. 성경은 계시의 최종·완성 형태
4. 영감은 계시의 한 방식이다
5. 성경은 기록 그 이상, 그 자체가 계시

>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능동·수동)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 주시는 행동이 능동적 계시이고, 그 결과로 사람이 갖게 된 지식이 수동적 계시다. 라틴어 revelatio는 '덮개를 걷어 냄'이라는 뜻이다(번역서 각주).

일반계시·특별계시

일반계시는 창조와 섭리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하나님의 알리심이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특정한 때와 사람에게 주신 계시다.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초월(세상과 떨어져 계심)만 강조한다.

범신론
하나님과 세계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내재(세상 안에 계심)만 강조한다.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인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님을 아는 본성적 지식(notitia Dei insita)·획득된 지식(notitia Dei acquisita)
사람 안에 심겨 있는 하나님 의식이 앞의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며 얻어 가는 하나님 지식이 뒤의 것이다.

원천과 방식
원천은 지식이 어디서 왔는가, 방식은 그 지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왔는가다. 워필드는 엄밀한 계시라면 둘 다 초자연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신현(神顯)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예: 불타는 떨기나무).

신임장(계시의 증명)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증하는 표시다. 워필드는 기적의 주된 역할을 이것으로 본다.

영감
이 장에서는 성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자 '계시의 한 방식'을 가리킨다. 로테·브루스는 같은 단어를 '사람이 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 성령의 내적 작용'이라는 약한 뜻으로 썼다.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계시에서 온다. 쟁점은 특별계시, 곧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느냐다.
- 엄밀한 계시는 원천과 방식이 모두 초자연적이다. 사람은 그것을 만들지 않고 받는다.
- 계시를 종교 의식의 성장, 구속 사건, 내면 체험으로 축소하는 이론은 모두 성경에 못 미친다. 성경적 계시의 정점은 객관적 말씀이다.
- 계시는 점진적이고 구속과 긴밀하지만 구속과 같은 것은 아니다. 구원을 위한 '지혜'다.
- 성경은 계시의 기록 그 이상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